

Interview

2009산업안전 석탑산업훈장 수상

SAMSUNG

삼성건설

김 유 택 상무

촬영/취재 • Willy기자

많은 사람들은 삼성이 손을 대면 업계최고를 달성하고야 만다고 입을 모으며 그 저력과 추진력에 찬사를 보내기도하고 때로는 시기(淸忌)의 눈총을 보내기도 한다. 지난 1977년 삼성종합건설과 삼성해외건설 설립으로 시작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역사는 오늘날 세계 최고층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건설업체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삼성건설의 진정한 모습은 외적인 면보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아야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2009년 산업안전보건장조기간행사에서 국내최초 체험안전교육장 설치 등 다양한 교육기법 개발 및 안전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삼성물산 건설부문 김유택 상무는 대한민국 건설업 안전부문의 금지탑을 세운 건설안전전문가라 말할 수 있다.

그는 삼성건설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 1976년 건설업에 투신한 이래 오직 건설업 한 직종에 인생의 승부를 걸고 있는 인물이다. 올해 수상한 석탑산업훈장 뿐 아니라 1994년 철도청장 감사장을 비롯해 1998년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2000년 법무부장관상, 자랑스런 삼성인상, 매일경제신문 안전공로상 수상, 2003년 국무총리 표창수상 등은 그의 성실함과 업무능력을 대변한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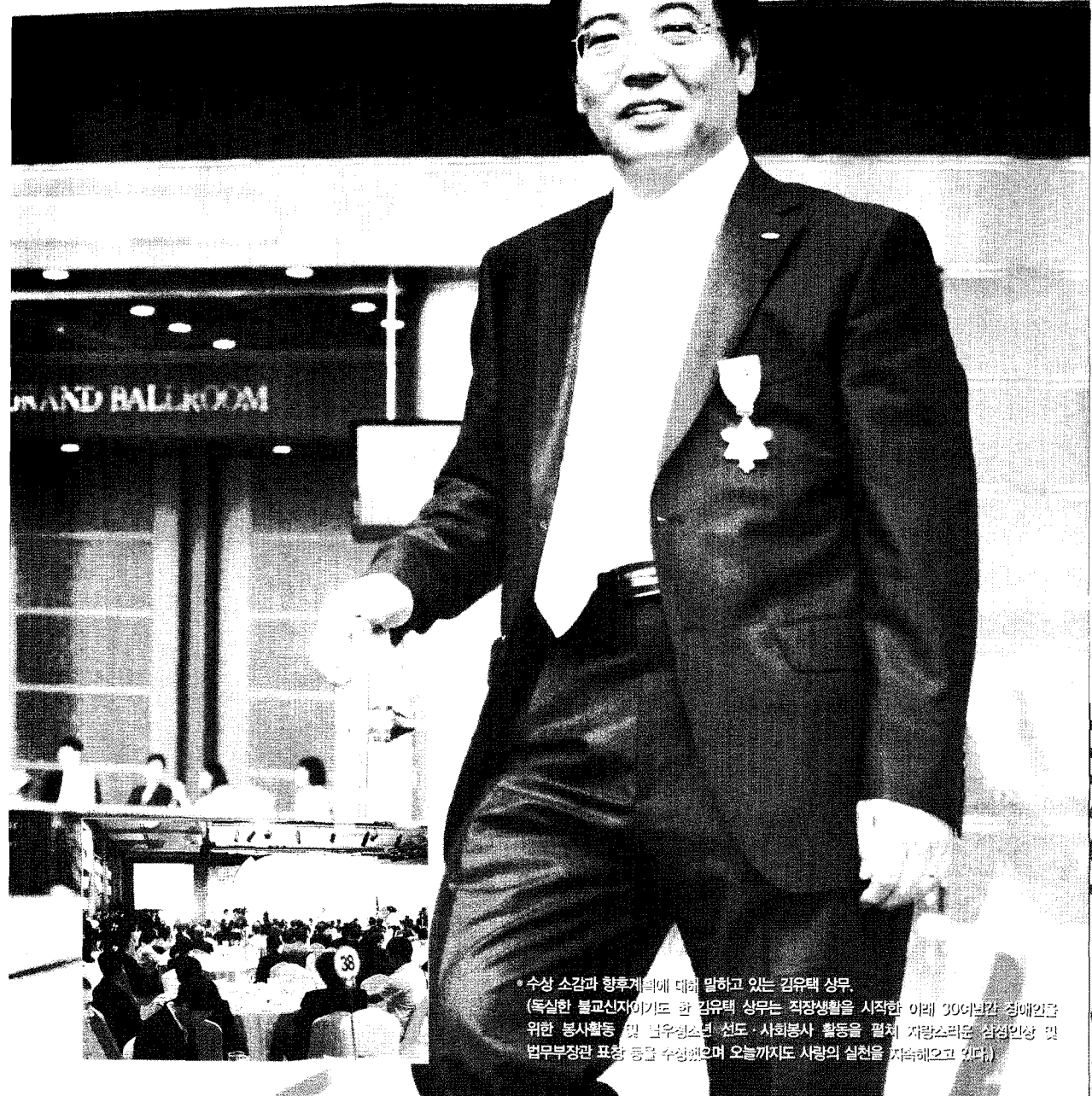
7월6일 석탑산업훈장 시상식이 있었던 KOEX 그랜드볼룸에서 만난 그는 여러 언론의 취재에 매우 분주했다. 한동안 여수선했던 시상식 및 언론사 인터뷰가 끝난 후 만난 김유택 상무는 “저의 뜻을 믿고 아낌없는 투자를 해준 회사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행하는데 불철주야 협력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은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오늘의 수상은 향후 사고 제로를 이룩하기 위해 더욱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근래 국내 건설현장을 방문해보면 사람이라면 건설현장이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잘 정리된 입구에서부터 국내건설업의 현주소를 체험하곤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렇듯 국내 건설현장의 혁신을 이룬 장본인을 많은 사람들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김유택 상무를 꼽는다. 지난 2002년 삼성물산 건설부문 안전환경팀 팀장으로 부임한 이래 안전환경분야의 아이디어뱅크로서 전력을 경주해온 그는 안전을 위해서라면 회사에 부담이 되는 법규도입도 찬성해 때로는 동종의 다른 업체로부터 질타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산업안전보건 - 사회 각 주체의 책임

1조주간

7.6 10



• 수상 소감과 향후계획에 대해 말하고 있는 김유택 상무.
 (독실한 불교신자이기도 한 김유택 상무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래 30여년간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 및 업무정신 선도·사회봉사 활동을 펼쳐 자랑스러운 삼정인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으며 오늘까지도 사랑의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

Interview



* 제42회 산업안전보건주간 행사에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한 삼성건설 김유택 상무와 축하인사를 나누고 있는 한경보 회장



*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기념촬영중인 김유택 상무를 비롯한 제42회 산업안전보건주간수상자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1,500억원 이상 현장의 건설안전기술사 상주의 건 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설사로서는 대형공사현장에 기술사가 상주해야함으로 인한 고급인력 수급문제 등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환영만 하기에는 달갑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들며 반대의견을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장의 안전을 위해 현장소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기술사 정도의 지식과 경력은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했기에 건설업체 관계자중 유일하게 찬성해 왔음은 물론 제도도입을 강력 주장해 왔던 인물이다.

그간 삼성물산 건설부문 김유택 상무가 도입해서 큰 성과를 거둔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건설업 최초로 6시그마 기법 사례와 해외 선진업체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안전경영시스템 도입, 국내 건설업계 최초의 '근로자정보관리시스템(WIS)' 도입 사례 등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 먼저 2009산업안전 석탑산업훈장 수상을 축하드리며, 금번 수상의 가장 큰 업적을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 답변에 앞서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제가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러우며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삼성건설은 현장 안전보건 관리비를 제외하고 본사 차원에서 전문 인력운영 및 교재개발 등 안전분야의 과감한 투자로 재해율 저감(2008년의 환산재해율 0.11 10년 연속 자율안전관리업체로 지정)과 일본 선진안전 건설사 벤치마킹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해 KOSHA 18001, OHSAS 18001을 인증획득한 점, 그리고 건설안전협의회 회장과 안전학회 임원 역임, 재해율 산정기준, 신인도 조정방안 등 정책개선을 주도한 점을 높이 평가받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건설업 체형 안전교육과 사이버 교육, 재해자 강사 및 웃음 안전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기법 및 교보재를 개발해 근로자의 실질적 안전의식 및 실천도 제고에 기여한 점과 작업책임자 자격이수교육 등을 통한 협력사 안전기법 전수 및 지원을 통한 상생경영 실천도 적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유택 상무께서는 지난 1976년 건설업에 입문하신 후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 경력도 화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금번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 전까지 1998년 건설안전 선진화 기여 건설교통부 장관상 수상, 2000년도의 범죄예방 기여 공로 법무부 장관상 수상, 2003년도 산재예방유공 국무총리 표창, 2006년 안전경영대상 공로상 수상이 대표적입니다. 저의 능력보다 과분한 수상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 김유택 상무 내외.



◦ 이영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09 산재예방유공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김유택 상무.

▶ 과분한 수상을 많이 받은 편이라고 겸손해 하십니다
 만,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할 큰 상
 들을 수상하실만큼 업무에 쏟은 열정과 성과가 대단한 결과
 를 낳았으니 당연한 수상을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유택
 상무께서는 평소 협력회사의 안전활동 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와 의미가 있는지요.

- 다른 업종도 그리하겠지만 건설업의 경우 안전활동은 협력
 회사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협력사의 안전활
 동 지원을 위해 협력사가 전문건설업 KOSHA 18001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협력사 계층별 안전교육과 작
 업책임자 자격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200
 명의 삼성기능장을 선발, 운영해 품질안전 리더 양성에도 힘
 쓰는 한편 협력사 자율품질안전활동 지원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발표하기는 이름이지만 조만간 협력업
 체의 안전활동 제고에 획기적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협력사의 계층별 안전교육의 경우 대표이사는 관계 법령, 안전
 방침 및 시스템/ 안전부서는 관계 법령, 모사 기준 및 제도, 안
 전계획 및 점검 방법/ 신입소장인 경우 현장 관리감독자 직무,
 안전작업기준,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작업책임자 자격이
 수교육은 실질적인 작업의 최일선 리더인 공중별 작업책임자
 (소·반장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안전작업방법 등을 교육함으
 로써 안전지식,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
 해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연계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 삼성은 전통적으로 관리의 삼성이라 일컬어지고 있습
 니다. 안전 활동에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회사의 투자는 어느 정도 인지요.

- 안전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
 야 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유도해 전
 사 안전부서외 시공본부별 안전부서를 신설하고 전담 안전
 인력을 대폭 보강해 전사와 별도로 건축·토목·발전플랜
 트·주택 등으로 세분해 안전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
 년부터 기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조직 TF팀도 운영하
 고 있습니다. 이팀은 흙막이, 지반, 거푸집동바리(슬라브), 교
 량, 터널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시공경험이 있는 박사, 기술
 사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위험현장에 대한 설계시 부터
 현장 공사완료까지를 지원해 기술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 현재 건설업에 도입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6시그
 마 경영기법의 도입도 김유택 상무께서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시그마란 무엇이며 그 성과를 어느
 정도 인지요.

- 먼저 6시그마란 1987년 MOTOROLA사에서 시작해 GE
 가 1995년에 도입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 후 전 세계적으
 로 확산된 기법입니다. 6시그마는 고객의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만
 족을 이루는 경영혁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Interview

건설업은 성장둔화와 정책 및 여건 변화, 고객니즈의 다양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차별화된 경쟁력과 고객만족 실천요구의 증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혁신 활동으로 지난 2005년 건설업 최초로 6시그마를 도입해 건설업 안전과제 총 293건을 수행하는데 챔피언, 프로세스 오토로 참여 및 지원하여 안전분야 프로세스 개선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안전을 말하려면 모두들 시스템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삼성건설은 시스템적으로 가장 완벽한 구성과 관리가 되어있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비결은 무엇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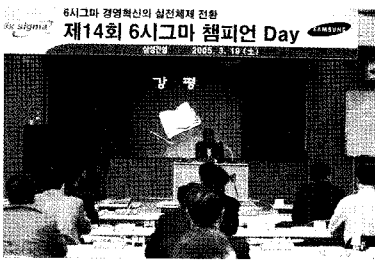
- 안전의 시스템적 관리는 지금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저희 삼성건설의 경우는 이를 위해 해외 우수건설사의 안전경영시스템 벤치마킹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3년 일본의 대성, 시즈미 건설 등 선진건설사의 안전시스템 및 활동을 3회에 걸쳐 벤치마킹하고 삼성 OHSMS(안전보건경영시스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 Risk Assessment(위험성 평가)를 통한 중점위험작업 집중관리, 안전평가 제도 개선, AUDIT 시행, 정도경영 및 표준화 실천 등 안전방침과 안전규정, OHSMS 시행규칙과 작업안전지침을 수립해 안전경영체계 구축으로 재해

율을 획기적으로 저감(2003년: 0.43→2008년: 0.11)할 수 있었습니다.

▶ 모든 일이 그렇듯 안전활동도 의식의 전환이나 개혁이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삼성건설의 경우 임직원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 제고를 위해 적용한 특별한 기법이 있었는지요.

- 우리 회사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설업 위험성평가 기준 및 작업안전지침을 개발해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작업안전지침에서는 중점 위험작업에 대해 작업순서에 따른 위험도를 분석(Risk Assessment)하고 발생 가능한 재해 형태를 사전 예측해서 관련 법규 및 기준과 중점관리 POINT를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제시한 표준안전지침서를 통해 당사 및 동업타사 재해 DATA의 정량적 분석에 의거해 시공계획 수립시 반영, 원·하도급사간의 위험사항에 대한 시공, 안전, 가시성, 인원 등을 협의·법적 기준제시(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기준)·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교재(TBM 및 교육)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삼성건설은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최초로 건설안전체험교육장을 자체적으로 설치 운영했습니다. 운영 초기 매우 획기적인 투자로 평가 받았는데요. 정확하게 언제였지요.



• 6시그마 챔피언데이 행사



• 마네킹 추락 체험교육



• 웃음 안전캠페인



• KOSHA 18001 인증 수여식



• 현장 자율안전점검단 활동



• 본부별 무재해기 출정식



◦ 힘찬 전진을 다짐하고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안전환경팀과 김유택 상무 가족

- 삼성건설은 지난 1995년 삼성 기흥 기술원에 건설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해 건설업에 처음 입문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종래의 주입식 교육방식에서 탈피해 직접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해 총 15개 차수에 4,180명에 대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2002년부터는 역시 국내 건설업 최초로 사이버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규, 사고사례, 안전대책 등 실무중심의 On-Line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전임직원이 이수해야 하고 특히 신입사원의 경우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흔히들 김유택 상무에 대해 아이디어 뱅크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오늘 인터뷰를 통해 새삼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건설업은 현장 곳곳에 산재해 있어 관리 및 표준화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 안전교육의 표준화를 위해서 적용한 기법이나 전략이 있으신지요.

-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의 경우 언급하신대로 현장이 산재해 있는 관계로 현장별로 실시방법 및 시기, 기준 등이 상이해 본부/현장별 교육의 수준차이가 발생하고 교육기자재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교육이 쉽지 않으며, 자료 활용도나 교육의 질 관리가 쉽지 않기에 표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신규채용자와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교육 등 다양한 안전교육 기법 개발로 실질적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서도 힘써 현장의 형식

적인 안전교육 및 행사에서 탈피해 재해자 강사 강의, 웃음 안전교육, 근로자 2분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부터는 매년 2월 무재해기 릴레이 운동을 실시해 무재해라는 공통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전사·본부·현장·협력회사의 일체감과 소속감을 높이고 우리 회사의 '안전경영최우선' 방침을 대내·외에 공표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모두가 솔선수범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삼성건설의 안전경영활동은 세계초일류의 시공능력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표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유택 상무의 2009산업안전 석탑산업훈장 수상을 계기로 나눈 인터뷰가 건설업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가슴에 벅찬 감동으로 기억될 것임은 물론 건설분야 안전을 위해 모든 자료를 공개해 주신데 대해서도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수상을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삼성건설과 김유택 상무의 더욱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 대한민국 건설안전의 대표주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의 '건설안전기술' 지와 인터뷰를 갖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여기고 있으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성건설은 그간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상호 협력관계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안전에 앞장서는 대표기관으로의 역할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nterview